

# 우리들의 天命： “술과 더불어 平生”



宋 復

<연세대 교수·사회학>

술과 담배. 인간이 발견한 묘한 기호물이다. 이것 없어도 인간사회에 드라마가 있었을까. 술이 끼이지 않는 드라마, 담배맛이 풍기지 않는 희극물.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예겐 이 드라마틱한 기호물을 일체 피하라고 권한다. 권하는 정도를 넘어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학생들이야 으레 어른들이 하는 소리겠거니 하고 귀넘어 듣기 일쑤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선생으로서의 그 어떤 도리에서라기보다 내 자신의 뼈아픈 경험에서다.

어느 해던가, 이제 갓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말한일이 있다. “여러분들이야 그 묵였던 세월에서 이제 자유로워졌으니 <술, 담배 맘껏 해보자> 잔뜩 기대감에 차있겠지만, 제발 그런것 하지 말아라. 특히 담배를 피우지 말라, 술은 절주할 수 있으면 하지만. 절주될리 없고, 으레 폭주할 것이고, 그러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어렸을 때, 아니 나의 젊은 날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얘기 했다. 나는 우리 부모에게 참으로 「빛나는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어떤 수칙

를 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암기됐다. 전화번호는 수첩에 아예 적을 필요가 없었다. 물론 메모하는 수첩도 없었다. 필요한 번호는 죄다 외워 있었다. 당시 내 직업상(기자) 우리나라 지식인 전화번호는 미상불 다 외워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300여개는 넘지 않았을까. 전화번호 외기로 친구들과 파 술내기도 종종 했다. 그러던 것이 지금 우리집 전화번호도 아른할 때가 많다. 이 모두 술 탓이다. 그리고 담배탓이다.

내 얘기가 끝나자 마자 어느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반격을 해왔다. “선생님, 그 전화번호 따위나 외고있는 머리가 어떻게 빛나는 머립니까.” 나는 서슴치 않고, “야 이 학생아, 그 시시한 전화번호 따위를 그렇게 외울수 있었다면 책은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몇 페이지, 아니 몇 십 페이지도 거뜬히 외울 수 있었노라.” 정말 그 때는 그랬다고 생각했다.

나는 여섯살때부터 술을 마셨다. 농촌에서 자란 나는 어렸을 때 들녘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술심부름을 많이 했다. 술 주전자 주둥이로 찰랑 찰랑 넘치는 술(막걸리)을 입으로 훌쩍 훌쩍 마셔가며

심부름하는 것이 예사였다. 어른들도 술마신다고 꾸지람하지 않았고, 나도 술마시는 것을 좋지 않은 것이라 생각지도 않았다. 한번은 들녘에 도착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취해서 비틀거린 적도 있다. 그때 어른들은 「저놈이 먼저 취했어」하고 모두들 웃었다.

대학을 다닐 때 주말의 大學街는 환상의 거리였다. 혜화동에서 종로 5가까지, 그 많은 단골집들 중에서 특히 쌍과부집과 선산집을 많이 드나들었다. 쌍과부집은 문리과대학 바로 맞은 편에서 나이 40이 넘어 된 자매가 하던 식당인데, 술도 함께 팔았다. 아마도 50년대의 문리과대학 남학생들치고 이 집에 드나들지 않은 학생은 드물었을 것이다. 자매가 묘하게도 남편이 없어서 쌍과부란 별칭이 붙었는데, 언니 과부는 카더린 헵번을 꼭 빼닮다시피 해서 「카더린 아줌마」라 불렀다.

우리는 이 집에서 취토록 술을 마시고는 문리과대학 교정의 그 유명한 마로니에 밑에서 시를 읊조렸다. 그리고는 밤이 어둡도록 토론을 했다. 말이 좋아 토론이지 실은 입씨름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 술이 깨면 종로 5가의 선산집으로 갔다. 거기서는 젓가락 장단을 맞추며 흘러간 노래를 부른다. 그때 가장 즐겨 부르던 노래가 윤심덕의 死의 찬미, 이바노 비치의 도나우江, 전수린의 황성옛터, 고복수의 타향살이.

詩도 데카당틱한 것만 골라 외웠다.

먼나라로 갈까나

가서는 허기져 콧노래나 부를까나

이왕

억울한 판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서러운 일을

빼에 차도록 당하고 살까나

고향의 뒷골목

들담사이 풀잎마냥

할 수 없이 솟아서는

남의 손에

뿔힐듯이 뿔힐듯이

나는 살까나.

詩人 朴在森님의 序詩로 기억되는데, 이 시를 어떻게나 많이 외웠던지 근 40년이 다 지나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전쟁의 암울한 상처가 그대로 역력한 그 거리에서, 이 시는 우리의 혈기 우리의 분노 우리의 절망을 얼마나 카타르시스 시켜주었는지.

나의 술 버릇은 친구와 꼭 같이 마시는 것이고, 그리고 대개는 단골집에서 마시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새 술집을 잘 개발하지 못한다. 거의 언제나 마시던 그집 그의자에 앉아서 마신다. 그리고 친구와 꼭같이 마신다. 술과 담론은 같이 붙어 간다. 친구 없이 술을 마시는 것은 뜻없는 배, 아니 바람없는 뜻이랄까. 누군가의 詩에 주봉지기음(酒逢知己飲)하고 시향회인음(詩向會人吟)이라했다. 술은 마음 통하는 친구를 만나서 마시고, 시는 뜻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서 읊조린다고 했던가.

술은 친구와의 즐거운 대화 속에서 익는다. 이 대화에 여자가 끼이는 것은 달갑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酒와 色은 같이 간다고 하지만, 그 실은 술맛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술에는 언제나 담론이 제격이다. 談笑自若(담소자약) 말과 웃음과 편안함. 술의 묘미는 거기에 있고 술 맛의 극치 또한 거기서 온다.

친구가 없을 때는 아내와 같이 술집으로 간다. 평생을 살다 보면 아내는 여자가 아니고 친구다. 한번은 아내와 같이 학교에서 돌아 오다 어떤 술집에 들렀다. 「두레」라는, 여럿이 어울려서 한 서너번 가본 카페다. 단골이라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전혀 생소한 집도 아니다. 「두레」라는 이름이 좋아서 몇 사람이 지나다 「저기 가보자」해서 우연히 들린 것이 인연이 됐다. 주인은 지금 그 얼굴이 잘

생각나지 않지만 삼십이 조금 넘은 인상이 펍 밝은 여자로 기억된다.

나는 그 술집 앞에서 아내에게 지금부터 당신과 나는 부부가 아니고 동료선생이다. 당신은 河선생이고 나는 宋선생, 친구로서 마시는거라고 했다. 아내도 좋다고 찬성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맥주를 서너병시켰다. 河先生, 宋先生하며 잔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데 주인 여자가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맥주를 두어잔 마시고는 앞에 앉은 河선생(아내)에게, “저는 요, 이 송선생님을 존경하고 위하고, 송선생님은 저를 아끼고 사랑해요”라고 전혀 예기치도 않는 말을 했다. 예기치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엉뚱하기 이틀데 없는 말이였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맥주만 쭉쭉 들이키고 있었다.

그런데 앞에 앉은 아내의 눈이 이상하게 돌아 갔다. 인상이 찌푸러지면서 험상하기까지 했다. 「두레」 주인은 그런 河선생을 보고 “기분 안좋은 일이라도 계셔요”라고 물었다. 나도 “河선생 뭐 안좋은 일이 있소. 한잔 하시오”하고 잔을 넘겼다. 그 순간 아내는 벌떡 일어나면서 “그만 감시다”하고 먼저 걸어나갔다. 나도 할 수 없이 남은 맥주를 그대로 둔채 일어나 계산대로 갔다. “얼마요.” “7천 원이요.” 나는 만원을 주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나왔다. 문밖에서 아내는 남은 돈 3천원을 받아 오라고 나를 도로 떼밀어 넣었다. 나는 화장실로 가서 3천원을 세어서 밖으로 나와 아내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날밤 내가 당한 것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 “뭐 존경하고 사랑해! 아끼고 위해!” 아내는 밤새도록 나를 달달 뷔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됐다. 으레 술집 여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았다. 체신머리 없이 놀아서 그 따위 말이 나온 것이라고 지금도 아내는 말하고 있다.

아내와 나는 나이도 같고 취미도 같다. 그리고

직업도 다 같은 선생이다. 방학때 함께 앉으면 몇 며칠이고 붓장난을 같이 한다. 아내의 난초는 일품이다. 거기에 글씨까지 곁들여서 낙관만 하면 곧잘 작품이 된다. 내 글씨는 조형미가 엉망이다. 그래도 낙재기중(樂在其中). 즐거움은 언제나 그 가운데 있어 한번 붓을 들면 아침 점심 저녁, 밤과 낮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그래서 농반 진반으로 이미 나는 도(道)의 경지에 들어 섰다고 말한다. 아내는 말없이 웃기만 한다.

글씨를 쓸 때는 차를 달며 마시며 쓴다. 글씨가 끝나고 베틀에 먹이 마르면 술을 마신다. 이 때는 부드러운 술이 좋다. 포도주, 그것도 붉은 포도주가 제격이다. 글씨와 술, 이 둘은 영원한 짝이다.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 왕희지(王羲之)의 그 유명한 난정서(蘭亭書)가 취중에 쓰여졌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이야기다.

글씨와 술, 그에 못지 않게 술과 산, 이 둘 사이 또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 아마도 내 술의 절반은 山속에서 마셨을 것이다. 그것도 태반은 北漢山. 나는 매주 등산을 한다.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소주를 마신다. 천상천하(天上天下). 이런맛이 있을까. 이런 즐거움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나는 山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산정(山頂)에서의 술맛을 아직 못 본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을 측은히 여긴다. 인생의 참맛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긍휼(矜恤)한다. 맛은 지식이 아니다. 맛은 설명이되지 않는다. 맛은 깨달음의 세계다.

아마도 15년은 족히 되었을 것이다. 그날은 구정이였다. 늘 산같이 가는 친구들에게 전화했더니 모두가 감감 무소식이였다. 나는 아내에게 北漢山을 가자고 했다. 아내도 선뜻 따라 나섰다. 백운대의 위문에서 구파발 쪽으로 발을 돌려서 산기슭 가까이 와서는 계곡으로 접어들었다. 한 참 내려오다 보니 60세 가량의 풍채가 아주 좋은 노인 두분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무슨 연고로 이 구정날에 이

깊은 계곡에서 이분들은 술을 마시고 있을까. 나는 생각하며 그분들 옆을 지나쳤다. 노인들도 지나치는 나를 의식하지 않은 듯 열심히 정담을 나누고 있었다. 한 10m쯤 내려가다 뒤쳐져 오는 아내를 돌아봤다. 아내가 막 그분들 옆을 지나는 참이었다. 그 중 한 노인이 지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앉으라고 했다. 나도 돌아보던 참이라 웃으며 쳐다 봤다. 그런 나를 의식하고는 “여보 당신도 이리 오소”하고 나를 불렀다. 나도 합석을 했다.

“두분이 어떤 사이요. 부부간이오”하고 한 노인이 물었다. 나는 늘 술집에서 아내에게 하던대로 연극을 했다.

“이 아주머니 오늘 처음 보는데요”

“아 그래요”하고 노인은 또 아내의 손을 만졌다.

우리는 그날 그 계곡에서 그 노인들과 취도록 마셨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술입니까. 위스키도 아니고 소주도 아니고...” 내 물음에 한 노인이 위스키 1에 소주 3을 탄 것이라고 했다. 깊은 계곡이고, 사람이라고는 우리외에 한 사람도 찾아 볼 수 없는 구정이어서 인지, 술맛이 유달리 좋았다. 노인들은 서로 총장 원장으로 호칭했다. 한분은 병원장이라는 것을 즉각 알아차렸는데, 다른 한분은 무슨 총장인지 알 수가 없었다. 물어 보기도 쑥스럽고, 나도 그저 총장님 총장님 하며 떠들고 술을 마셨다. 대학총장? 검찰총장? 무슨 기관의 사무총장? 그 어느 것같지도 않았다. 뭔들 어떠랴. 술이나 마시자.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우리가 부부라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더욱 술맛이 낫는지도 모른다. 두 분은 가족이 모두 미국에 있어 자기들만의 외톨이라 했다. 그 외톨이 노인들에게 나는 입으로 서비스를 했고, 아내는 손으로 서비스를 했다.

헤어질때, 일어서는 나에게 한 노인이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요?” “저는 입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술을 잘하는구먼.” 다른 한 노인이 아내더러 “아주머니는 뭐하는 사람이요” “저도 입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말이 재미가 있군.” 우리는 모두 소리를 내어 웃었다.

같이 걸어 오는 우리를 뒤에서 “우리가 속았구먼”하는 노인들의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우리가 부부라는 것을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보고야 눈치챈 것 같다. 그 뒤 나는 한번도 그 노인들을 北漢山에서 뵈일이 없다. 신선같은 노인들. 아내와 나는 그 노인들을 신선이라고 불렀다. 신선같았던 그 노인들, 구름 따라 갔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른다.

나는 주막(酒幕)을 사랑한다. 나는 어렸을 때 주막으로 술심부름을 많이 다녔다. 일제시대 가정에서 술을 담그지 못하게 해서 주막에 가서 술사 오는 날들이 많았다. 나는 그 주막에서 떠드는 사람들의 소리를 늘 재미 있게 들었다. 그 주막이 그리워서 어느 해던가, 경주에 갔다가 어느 시인과 같이 주막이라는 주막은 다 뒤지고 다닌일이 있다. 아침 한 10시쯤에서부터 해가 거의 완전히 넘어간 황혼녘까지, 우리는 이 주막 저 주막을 찾아 다니며 그 분위기를 만끽했다.

어디든 멀찌 감치

통한다는 길 옆 주막

그 수없이

입술이 닿은 이빠진 낡은 사발에

나는 입술을 댄다.

흡사 정처럼

움아오는 막걸리맛

여기 수 없이

슬픈 노정이 집산하고

저만치

알맞은 자리

위엄있는 송덕비 위로  
맷고도 쓴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여  
소금보다도 더 짜다는  
인생을 안주하여  
주막을 나서면

노을 빛긴 길은  
가없이 길고 가늘더라만

내 입술이 닿은  
그런 사발에  
누가 또한 닿아라 이런 무렵에.

詩人 金容浩님의 「酒幕에 서서」라는 詩다. 이 詩가 좋아서 술을 마시면 수도없이 암송하기도 했지만, 원본을 본지가 원체 오래이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옮겨 적었는지 의심스럽다. 詩란 원래 詩인이 쓴대로 글자와 行이 정확히 맞아야 하는데, 제목부터가 「酒幕에서」인지 「酒幕에 서서」인지 확실치 않다.

나는 자주 들리는 단골집이 서너집 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불광동 근처의 「유림」이라는 집이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마도 7~8년은 죽히 다녔을 것이다. 물론 갈 때마다 대학동기이고 등산팬이 친구들과 늘 함께였다. 주인 아주머니는 인물이 곱고 성격이 아주 상냥스러워서 손님들이 다 좋아했다. 우리 친구들은 주인 아주머니를 보고 “아, 이 집에 돈 참 많이도 갖다 바쳤다.”고 늘 호기를 부렸다. 그러면 주인은 “얼마나 갖다 주었는데 그래요”라고 동수했다. “일주일에 평균 3만원, 일년 최하 40번이면 120만원, 그리고 7년이면 8백 40만원. 여보시오, 빌딩도 한채샀겠요”라고 친구 李局長이 계산을 했다. 이 계산은 갈때 마다 해서, 술

값을 낼 때마다 “오늘은 8백 43만원”이고, 그리고 그 다음번은 “아마 오늘은 8백 46만원이지”하고 냈다.

그러던 어느날, 이 집 앞에 오니 문앞에 「謹弔」 팻말이 붙었고, 그리고 문이 잠겨 있었다. 아마도 喪을 당한 모양이지. 조문을 갈까. 하지만 집을 알아야지 하며, 우리는 곧장 근처 술집을 더렀다. 마침 바로 옆에 「알트 리베」라는 카페가 있었다. “아 여기 알트 하이델베르그가 있었군”하고 그 카페로 들어갔다. 우리들에겐 옛사랑 「알트 리베」보다 황태자의 첫사랑에 나오는 「알트 하이델베르그」가 더 익다. “주인, 이름을 알트 하이델베르그로 바꾸시오”하고 우리는 앉았다. 하이델베르그, 넥카江邊의 푸르스름한 달빛에 어린 古城의 하이델베르그. 그 하이델베르그의 술집과 흡사한 분위기가 이 집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도 단골로 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유림」과 번갈아 다녔다.

어느날 이 「알트 리베」에서 나오다 「유림」집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아주머니는 단번에 안색이 싹 바뀌었다. 그리고 험하게 나를 끌고는 자기 집 의자에 앉혔다. 아주머니는 아주 분노에 찬 얼굴로 나를 노려봤다. “아주머니, 왜 이러는거요. 내가 뭐 외상 진 것 있오”하고 나는 물었다. 아주머니는 숨을 헐떡거리며 “소위 대학교수라는 양반이 그렇게 계도 몰라요”하고 소리쳤다.

“모르다니, 내가 뭘 모르단 말이요”

“아예 우리집에만 다니든지, 그렇잖으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멀리로 가서 마시세요.”

“아니, 무슨 법이 그렇소. 술꾼이 자기 돈으로 어디가서 마시든, 그게 무슨 상관이오. 왜 남의 술 마시는 자유를 구속하오.”

“자유, 그 쪽 자유만 구속하고, 내 자유는 구속했다 생각하지 안해요. 자고로 장사쟁이 씨앗샘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몰라요.”

장사쟁이 씨앗샘보다 더 무섭다. 나는 한때 얻어맞은것 같았다. 나는 그 때 맑스의 사회계급론을

강의하고 있었다. 그 강의의 한부분으로 맑스의 史的唯物論이 있다. 이 아주머니가 나에게 유물론강의를 한 것이다. 세상에 질투중 가장 무섭고 가장 강한 질투는 씨앗 질투라고 한다. 남편이 첩을 얻었을 때, 여자들은 도저히 참아내지 못한다. 그 반대는 더 무섭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상상해보라. 견더 널 남자가 이 세상 한 사람이라도 있겠는가. 술집 아주머니가 으레 지꺼리는 소리도 견더내지 못한 우리집 마나님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 보다 더 무서운, 더 강한 질투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장사셈이라면, 맑스의 유물론은 꺼질날이 없겠다. 씨앗셈 또한 사라질날 없을 것이

고, 따라서 관념론도 꺼질날이 없을 것이고….

“아주머니, 그 말 참 맞소. 내 오늘 술 값 두배로 넬테니 술가져 오시오.” 그날 우리는 「알트 리베」 주인까지 「유림」으로 초청해서 밤새껏 마셨다.

술은 용광로 처럼 모든 것을 용해했다. 장사셈도 씨앗셈도 그 안에 녹아 들었다. 낙부천명 부해의 (樂夫天命 復奚疑), 도연명(陶淵明) 귀거래사(歸去來辭)의 마지막 구절이다.天命을 즐겼으면 그 뿐이지 또 무엇을 의심하라. 술은 우리들의天命,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 갈 것이다. 무엇을 더 의심해서 무엇을 더 바라라.

Shallow understanding from people of good will is more frustrating than absolute misunderstanding from people of ill will.

선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얕팍한 이해는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완전한 오해보다 더 절망적이다.

—Martin Luther King Jr—